

이정식 “중대재해 감축, 현장의견 모아 집단지성 발휘해야”

(고용부 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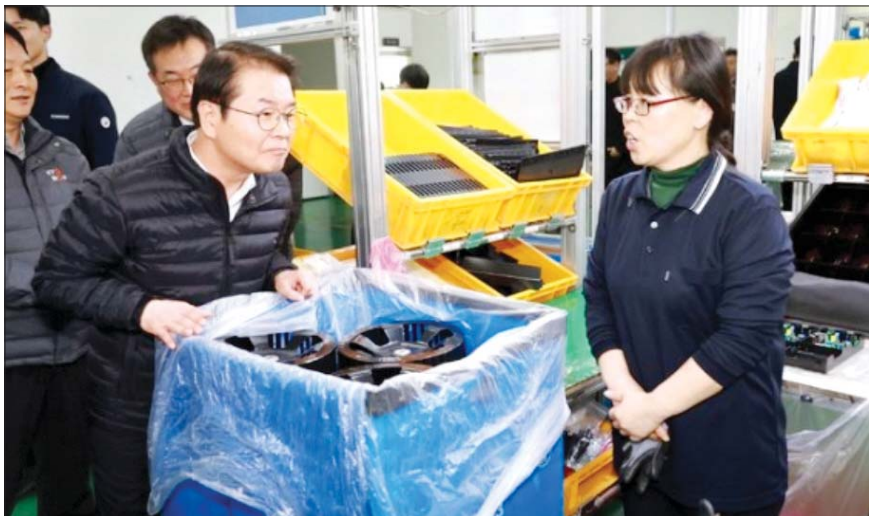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이행 점검
“일부 기업, 안타까운 사고 이어져
소수 전문가·이해관계자 아닌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 참여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집단지성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지역과 현장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닌, 지역과 현장이 정책을 바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인천남동공단을 찾아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년 전인 지난해 11월 말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건 바 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일부 기업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졌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소수의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결정이 아닌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모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지성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기업이 현장 상황에 맞는 재해예방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화하겠다”며 “선진국 수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4일 인천남동공단에 위치한 (주)교원프라퍼티를 방문해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고용부

의 안전한 사회로 도약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공단 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인 (주)교원프라퍼티 사업장을 방문했다.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율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한 사항을 확인하고, 위험성평가의 단계적 확산에 앞서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사항 등을 점검했다.

모두발언 직후에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전문가와 산업안전감독관, 청년 현장관계자, 2030 자문단 등이 참석했다.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로드맵 추진현황 및 개

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중대재해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현장의 근로자 특히, 청년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로드맵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적극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로드맵이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시행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자 수는 올해 1~9월 45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명 감소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10월 연휴, 여행·옷 수요 늘어 온라인쇼핑 사상 첫 20兆대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편리성·가격 경쟁력에 증가 추세
모바일쇼핑 거래액도 역대 규모

여행 수요·의복 구매 등에 힘입어 월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섰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17조9709억 원)에 비해 11.8% 늘어난 20조9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1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대를 기록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올해 4월 17조 원 규모로 잠시 주춤했으나 5~9월 기간에 18조~19조 원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10월에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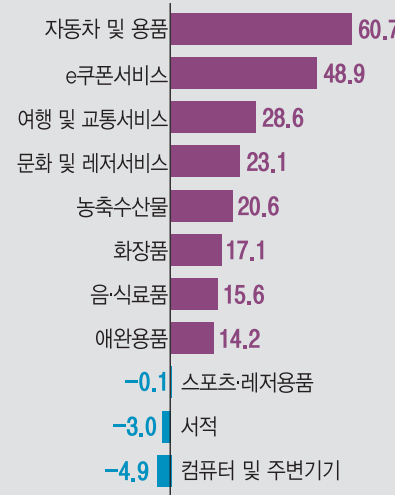
10월 기준으로, 2017년 7조6000억 원대 수준이던 거래액은 2018년 10조 원대로 진입한 뒤 2020년 13조8000억 원, 2021년 16조6000억 원, 지난해 17조9000억 원까지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거래 편리성, 가격 경쟁력 등으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10월에는 여행 수요가 지속돼 여행·교통서비스 거래액이 28.6% 늘어난 2조997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추석연휴에 이은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외부활동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음·식료품과 이(e)쿠폰 서비스도 각각 15.6%, 48.9% 증가한 2조4천803억 원, 8천9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추·동

온라인 쇼핑 주요 증감 품목

10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뉴시스 그래픽

북 등 옷 구매가 늘면서 의복 거래액은 5.6% 증가한 2조449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역대 최고치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이 12.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서비스(11.0%), 여행·교통서비스(10.5%) 순이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가운데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10.0% 증가한 14조7천158억 원이었다.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온라인쇼핑에서 모바일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73.2%에 달했다. 특히 배달음식 등 음식서비스는 모바일 비중(98.2%)이 압도적이었다.

취급상품 범위별로, 종합몰의 거래액은 전년동월 대비 8.7% 증가한 12조2972억원, 전문몰은 17.0% 증가한 7조7933억 원을 기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식품부-스타벅스 상생 협약... 내년 국산 가루쌀 신제품 출시

장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우수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스타벅스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 식품을 개발하고 농가에게 커피박 퇴비를 기부하는 등 농업과의 상생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스타벅스는 이번 협약의 첫 결과물로 내년 상반기 중 가루쌀을 활용한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진은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오른쪽 두번째)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는 모습이다.

/손진영 기자 son@

공정위, ‘한전 SW 입찰담합’ 4개社 적발

(소프트웨어)

과징금 총 2.5억 부과

한전과 한전KDN이 발주한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구매입찰에서 4개사의 담합이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전력공사 및 한전KDN이 2019년 4월 ~ 2022년 5월까지 기간 중 발주한 ‘채널라이선스(말로 하는 ARS) 소프트웨어 외 7종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4개 컴퓨터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53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입찰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텍스퍼트 4개사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2월 공익신고 중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정위에 이첩하면서 이뤄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전과 한전KDN의 고객센터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텍스퍼트는 다음정보기술, 에

스지엠아이, 티앤아이씨티를 섭외해 낙찰예정자 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이들과 물품구매계약 등을 통해 기술지원을 했다. 이후에 텍스퍼트는 자신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게 되자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제한 건으로, 담합으로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환경부, ‘세계토양의날’ 기념행사·포럼 개최

산·학·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 참석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세계토양의날을 맞아 기념행사 및 토양·지하수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건강한 토양, 미래를 싹 틔우다’를 주제로,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서 5~6일 예정돼 있다.

유엔(UN)은 토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양보전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정기총회에서 12월5일을 세계토양의 날로 지정했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올해 행사에는 학계와 산업계, 정부기관 관계자와 어린이 등 토양 보전에 관심 있는 30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기념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특별강연으로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공연은 충남 서천에 위치한 장항송림숲(장항제련소)에서 촬영한 영상을 배경으로 현악4중주의 연주가 진행된다. 장항제련소는 일제강점기부터 수십년간 운영되면서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으로 오염된 곳이었

으나 2009년부터 토양을 정화하여 자연과 생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기념식에서는 토양보전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 10명이 표창을 받는다. 지난 7월 열린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캠프’ 우수참가자 어린이 16명도 상을 받는다.

또 한반도 기후의 역사와 생태학의 관점에서 토양보전의 의미를 규정한 내용의 특별강연이 진행된다.

6일에는 2023 토양·지하수 공감포럼이 예정됐다. 포럼에서는 산·학·연 관계자들이 토양 기술의 해외 진출 방안, 국내의 불소 기준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토양·지하수 산업 및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고용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건강한 토양은 깨끗한 물과 공기만큼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국민들이 토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토양보전을 위한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